

강 의 계 획 서

노무 2차
GS 0기 (주말) **노동경제학**

	장선구 박사 <sunkujang@hanmail.net>	
강 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학사 및 박사 ▪ 現) 성균관대학교 겸임교수 (노동경제학 강의 중) ▪ 現) 한국경제학회 종신회원 ▪ 現) 공인노무사 경제학, 노동경제학 전임 ▪ 유튜브채널) 경제학짱박사 운영 ▪ 다음카페) 포인트노동경제학 운영 	
일 정	9/13(토)~12/20(토) 매주 토요일 (총14회) * 추석연휴 (10/4) 강의 없음	
시 간	저녁	6:30 ~ 10:00
교 재	노동경제학 제9판 (George J. Borjas, 시그마프레스) 수험경제학을 위한 기초경제 제3판 (장선구, 비엔엠북스)	

강의목표

기본과 응용에 충실한 강의!

- 노동경제학의 기초부터 완성의 발판을 마련하는 제대로 된 강의
- 매번 시험을 통한 실전 연습을 GS0기부터 시작
- 노동경제학의 현실적인 응용을 반영한 강의
- 경제학에 기반을 둔 깔끔한 그래프 그리는 법과 논리적인 답안을 쓰는 법을 체득하는 강의

강의특징

1. 최신 출제경향 모두 적중한 강의

사실 노동경제학은 어느 문제가 출제될지 뻔히 예상이 되는 과목이고, 그 결과 출제 포인트 보다는 예상된 문제를 어떻게 쓸 것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라기보다는 당연히 살게 되는데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살고 있는데 죽은 것과 진배없는 삶은 살았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강 의 계 획 서

아마도 노동경제학을 강의하는 어느 선생님 수업을 수강해도 아마 모두 문제도 다 예측하신 것 범위 내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불의타가 별로 없다는 것이 노동경제학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년 노동경제학을 강의한 4년 동안 수업시간에 다루지 않은 문제는 출제되지 않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 매년 제가 1년을 앞서가는 특성이 있더라구요.

최근 계산 문제들은 노무사 1차 경제학의 문제와 유사하게 출제되어 오히려 1차에서 경제학을 선택하신 분들은 매우 유리해보입니다.

또한 최신 AI를 이용하여 인공지능을 학습시켜 다양한 문제와 출제 가능성의 문제들을 조금더 바로바로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2. 출제자 교수님들이 제 모의고사 문제를 보고 출제하는 건 아닐까? (뇌피셜)

불의타성의 문제라고 흔히 말하는 문제들 중에서 2017년에 문제로 출제했던 **유보임금**은 2017년에는 안 나오고 2018년에 출제되었고, 2018년에 출제했던 **노동조합의 이탈-목소리 가설**은 2019년에 출제가 되더라구요. **EITC와 통계적 차별과 오하카모형**은 2019년에 매우 강조했는데, 2020년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2023년의 경우는 계속 강조하던 인적자본모형과 신호발송 계산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노동-여가 선택모형을 이용한 계산문제와 실업률과 고용률 계산문제 그리고 노조의 선택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우리 책에 모두 실려 있는 내용이며 너무 쉽게 출제되어 차별화가 어렵지 않았을까 합니다. 앗! 물론 그럼 예측이 바로 당해 시험은 예측이 틀린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 수 있을까 봐 혹시나 말씀드리는데 **앞에 말씀드린 모든 문제들은 우리가 교재로 사용하는 『노동경제학 연습』에 all-in-one으로 모두 담겨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말반에는 가장 현재 출제 기본서라고 할 수 있는 **“보야스”교수님의 책**으로 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꼼꼼히 보셔야 하는 책임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최신 시험의 유형들에 가장 잘 부응하면서 한발 더 앞서 나가고 있다고 있습니다.

3. 노동경제학을 가장 노동경제학답게 강의하는 강의

노동경제학을 가장 노동경제학답게 강의한다고 자부합니다. 노동경제학이란 노동시장을 경제학적으로 분석하는 것인데, 노동시장은 바로 노동수요와 공급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거래가 되는 희소한 대상이 바로 노동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를 어떻게 경제학적으로 분석하는가라고 볼 수 있는데 희소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바로 경제학적인 분석방법입니다. 이를 최적화(optimization)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경제학은 이러한 최적화의 원리에 기반을 둔 선택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결국 경제학의 기본이 잘 닦여 있어야 합니다. 혹자는 그냥 그래프만 때려 박으면 점수가 나오는 거 아냐? 내용만 쓰고 핵심 용어만 잘 들어가 있으면 좋은 점수 받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우리 시험은 단답식이 아니 논술형 시험입니다. **논리적인 흐름이 제일 중요**합니다. 과거 시험에서도 중간에 계산문제 식은 어느 정도 맞았는데 답이 틀린 경우, 그래프를 잘 설명했는데 축을 바꾼 경우 등 이런 실수는 매우 치명적이긴 한데 중간에 논리적인 접근과 내용이 매끄럽고 훌륭한 경우 감점을 크게 하지 않더라구요. 물론 최신 시험문제의 스타일은 점차 계산과 짧은 약술형으

강 의 계 획 서

로 변화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평소에 많은 연습을 통해서 자잘한 실수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4. 최신 노동경제학 트렌드(계산,모형)를 반영한 강의

노동경제학의 출제 스타일도 과거와 약간 달라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다고 이론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는가를 묻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판단기준이 바로 계산문제의 등장과 모형의 현실응용이 많이 등장하는 추세인 것이죠. 따라서 본 수업은 최근의 경향에 발맞추어 **경제적 모형을 어떻게 세우는지 최적화의 원리를 통해서 접근하고, 이를 그래프로 표현해서 현실 경제학에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는가**를 살펴볼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계산문제와 그래프 그리는 시험을 통해서 점차 고득점을 할 수 있는 뼈대를 마련할 것입니다.

5.매시간 50점 답안(복습문제)을 작성하여 답안을 쓰는 방법을 익히는 강의

노동경제학은 노무사 2차 과목으로 논술형 시험입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논리적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직접 서술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능력의 함양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시험을 보면서 고치는 인고의 시간을 거쳐야 합니다. **결국 계속 써보는 방법**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경제학적인 기반이 부족한 처음 입문자들을 위해서 약술형과 간단한 그래프 형태의 주관식 문제를 50점(10점짜리 5개)을 연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이후에 1기부터는 좀더 긴 약술형 문제를 접해 점차 실전에 대응하는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GS0기의 문제는 노동경제학의 기초가 되는 문제와 더불어 경제학의 기본이 되는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6. 답안 작성과 채점평을 강사가 직접 작성하는 제대로 된 강의

노동경제학의 경제학의 한 분과학문으로 경제학적인 마인드로 이해하고 암기를 해야 합니다. 아무런 생각이 없이 이해 없이 그냥 그래프를 암기하거나, 계산문제를 풀어본다고 실전에서 해결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정확한 논리에 기반을 두고, 경제학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본 수업은 강사가 직접 채점평과 중간 중간 답안 작성하는 방법을 코멘트 해 줄 예정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반복을 통해 연습하면 스스로 변화되는 기적을 직접 체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수강대상

- 경제학에 아예 기초가 없는 분들
- 제대로 이해 위주로 노경을 제대로 공부하려는 분들
- 기존에 노동경제학을 공부한 적이 있지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감을 못잡는 분들
- 노동경제학 선택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분들

강 의 계 획 서

강의진도

■ 핵심 출제 포인트 기초부터 공략 ; 기초 탄탄 전략
 GS0기에는 모든 범위를 다루지 않습니다. 노동경제학은 경제학의 응용과목으로 기초부터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올라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어렵지 않게 고득점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학의 기본적인 내용을 어느 정도 다시 설명을 들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대로 경제학적 기반이 없이 공부한다면 계속 제자리를 맴돌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전에 경제학을 공부하신 분들도 있고, 다른 좋은 쌤들 수업을 듣고 오신 분들도 계신데 점수가 잘 나오지 않고 어떻게 공부를 할지 헤매는 경우는 자세하게 보면 기초가 잘 잡혀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기초경제학도 일부 수업
 출제 포인트를 기초부터 공략하는 과정 속에서 기초경제학의 내용을 추가로 수업합니다. 이는 1차를 보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고, 1차를 보지 않는 분들도 답안을 쓸 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혹시 기초경제는 특강으로 따로 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 봤으나, 대부분이 듣고 오지 않더라고요. 또한 아예 1차 준비를 경제학으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경제학을 선택하지 않는 분들도 많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1차는 객관식이므로 주관식과 약간 접근방법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차근차근 징검다리도 하나하나 두드리며 건너 합격의 관문을 통과하시죠.

※ 세부 일정은 진도내용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 차	날 짜	진 도 범 위
1	9/13	제1장 노동경제학이론
2	9/20	제2장 노동공급 + 기초경제학
3	9/27	제2장 노동공급 + 기초경제학
4	10/11	제2장 노동공급 + 기초경제학
5	10/18	제3장 노동수요
6	10/25	제3장 노동수요
7	11/1	제3장 노동수요
8	11/8	제4장 노동시장균형
9	11/15	제4장 노동시장균형
10	12/22	제4장 노동시장균형
11	11/29	제5장 보상적임금격차/ 제6장 교육
12	12/6	제7장 임금분포/ 제8장 노동이동
13	12/13	제9장 노동시장 차별/ 제10장 노동조합
14	12/20	제11장 유인급여/제12장 실업